

아동의 연령과 성별에 따른 협상수준

Children's Negotiation Levels with their Age and Gender

구현아(Hyunah Koo)¹⁾

정대련(Daeryun Chung)²⁾

ABSTRACT

This study was to find out children's Negotiation Levels(NLs) according to their age and gender. The subjects for this study were 143 children of 7, 9, 12 years. Two children dyads participated in the experimental play situation with Rokenbok Electronic Toy Systems. The NLs in children's interactive dialogue & actions were scored with Stone, Robinson & Taylor(1980)'s '*Negotiation of Task Completion Coding Manual*'. They were coded into Level 0(no interaction), Level 1(one way interaction), Level 2(reciprocally interaction), Level 3(mutual or cooperative interaction).

The results were as follows; 1) 12-year-old children negotiated with higher level than 7-and 9-year old children 2) Boys' NLs average were higher than girls'.

These results imply that 1) the fluctuation of NLs in childhood, especially around 10 years, should be interpreted carefully, 2) various measuring kits for negotiation should be developed considering children's characteristics, such as age, gender etc.

Key Words : 아동의 연령과 성별(children's age and gender), 협상(negotiation), 협상수준(negotiation level), 전자놀이감(electronic toy).

I. 서론

현대인의 삶 속에서 협상은 필수불가결한 요소이다. 우리는 생활 속에서 끊임없는 협상을 하고 있다. 크게는 국가와 국가 간 또는 노사간의 협상에서부터 작게는 가정 내 부부간의 의견조

정이나 부모자녀간의 의사조절과 기대조절 그리고 아동들의 놀이역할 분담 등, 수많은 삶의 국면에서 우리는 협상을 하고 있다(Cohen, 1980).

그러나 주로 협상문제는 외교 분야나 경제, 경영학에서 다루어진다. 여기서 말하는 협상의 정의는 갈등을 빚고 있는 둘 또는 그 이상의

¹⁾ 호서대학교 아동학과 강사

²⁾ 동덕여자대학교 아동학과 교수

Corresponding Author : Hyunah Koo, Department of Child Studies, Hoseo University 120-1, Anseo-dong, Cheonan, Chungnam 330-180, Korea E-mail : 0804@korea.com

당사자들이 공동 이익이나 갈등을 가지고 상호 이익을 추구하여 합의에 도달하는 상호작용 과정을 의미한다. 협상의 유형은 분배적 협상과 통합적 협상으로 나누어진다. 분배적 협상(distribute negotiation)은 제로섬(zero-sum) 또는 일정합(constant-sum) 협상이라고도 하며 승자와 패자가 분명히 나뉘어지는 협상을 의미한다. 통합적 협상이란 양측이 각자의 이해관계를 통합한 합의를 도출해냄으로써 서로 극대화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해 협력하면서도 동시에 상대방 보다 더 많은 가치를 확보하기 위해 경쟁하는 협상이다. 이런 유형의 해결방법을 윈윈 해결책(win-win solution)이라고 한다(이달곤, 2002; Harvard Business Reviews, 1960; Harvard Business Essentials, 2004).

아동들의 세계에서도 아동과 아동 혹은 아동과 성인들 간에 마찰이 생겼을 때 서로가 목적을 협의해 나가는 의사소통과정 속에 협상이 이루어진다. 그리고 이들이 추구해야 할 협상은 분배적인 협상이라기보다는 궁극적으로 통합적인 협상에 가깝다.

아동의 협상문제는 Stone, Robinson 그리고 Taylor가 제시한 <협상과제수행 부호화 요강>을 통해 살펴볼 수 있다(Stone, Robinson & Taylor, 1980). 그들은 협상수준(negotiation level)을 아동의 사회적인 능력 면에서 0 수준에서 3 수준으로 나누어 분류하고 있다. 요강에는 수행(implementation), 나누기(material distribution), 돕기(helping) 등의 세 측면에서 아동들의 협상수준이 설명되고 있다. 0수준은 충동적인(impulsive) 수준으로 상대방을 배제한 상태에서 화자의 본인의 지가 그대로 표현되는 수준이며, 1수준은 일방적인(unilateral) 단계로 타인의 요구를 고려하지 않고 본인의 요구에만 관심을 갖는 수준이다. 2수준은 상호적인(reciprocal) 단계로 본인의 의지를

표현하면서 상대방의 의지를 고려하는 수준이며, 3수준인 협동적인(collaborative, mutual) 단계는 상호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스스로의 요구와 타인의 바람에 대해 협동적인 시도를 하는 경우이다.

Stone과 그의 동료들(1980)의 협상수준 요강에 제시되어 있는 0~3수준을 기본으로, Selman과 그의 동료들(Selman 등, 1983, 1986, 1991)은 그 지향(orientation)이 무엇인가를 분류하여 타인지향 그리고 자기지향의 협상전략을 제시하였다. 여기서 타인지향이란 갈등 혹은 마찰이 발생할 경우 타인의 요구에 맞추어 협상하는 것을 의미하며 자기지향이란 자신의 요구에 초점을 두고 협상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들을 비롯한 여러 연구자들은 협상전략과 아동의 특성들과의 관계를 밝히고 있다(박지숙, 2002; Selman & Demorest, 1984; Selman Schorin, Store & Phelps, 1983; Selman, Beardslee, Schultz, Krupa & Podorefsky, 1986; Yeats, Schults & Selman, 1991).

아동들은 협상을 통해서 놀이를 촉진시키고 진행 시킨다(Borman, 1981, 1982; Doyle & Connolly, 1987 & 1989; Göncü, 1985, 1993 & 1999; Howe 등, 1998 & 2002; Matthew, 1977). 특히 사회극놀이에서 협상은 아동들의 놀이 시연뿐만 아니라 놀이의 지속을 위해 필수적이라고 보고되고 있다. 이는 협상이 놀이를 지속시킬 뿐 아니라, 규칙을 정할 때 생기는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사용되기 때문이다.

Doyle과 Connolly(1987, 1989)는 사회화 과정이 놀이 시연과 놀이의 규칙을 위한 협상의 두 가지 과정으로 이루어진다고 보았다. 그리고 사회적 가상놀이가 사회적 적응에 기여하는 것을 측정하기 위해 가상놀이의 시연과 협상 사이를 구분하는 기초를 연구하고자 하였다. 연구 방법으로 오전 실내자유놀이시간에 20초

관찰, 20초 기록의 시간표집법을 사용하였으며, 20초 내에 5초 가량 협상 또는 놀이의 시연이 발생하면 기록하였다. 여기서 의미하는 협상 또는 놀이의 시연은 또래와의 사회적 가상놀이에 있어 놀이의 전환, 놀이의 부정, 역할의 전환시에 역할결정을 토론하며 기존의 놀이에 다른 아동을 초청하고 권리나 물건의 용도를 분명히 하는 경우를 말한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사회적 가상놀이에서 이루어지는 사회화 과정은 놀이규칙의 협상이나 놀이 시연에 관련이 있었다. 또한 유아기의 가상놀이에는 협상보다는 놀이 시연과 더 관련이 있었지만 협상이 유아들의 놀이 시연을 지속시킨다고 보고하였다.

Howe와 그의 동료들은 가상놀이의 시연, 협상, 그리고 언어의 내적 상태와 형제관계의 질을 측정하고자 40명의 취학 전 아동들을 대상으로 짝을 지어서 자주 시연되는 상징놀이와 그렇지 않은 상징놀이에 참여하게 하였다. 그 결과 빈번한 상징놀이에서 높은 수준의 협상이 이루어지며 내적 상태의 언어를 더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Howe, Petrakos & Rinaldi, 1998).

협상과 구성놀이를 관련시킨 연구도 있다(Azmita, 1988; Sluss, 1995). 이들 연구는 구성놀이 중 특히 블록놀이 속에서 나타나는 협상과 관련되어 있으며, 이러한 연구 역시 블록을 사용하기는 하되 놀이 자체는 사회적 가상놀이에 초점을 두고 있다. Azmita(1988)는 '레고 구성하기'라는 과제를 통해 유아 혼자서 문제 해결하는 조건과 다른 사람과 상호 작용하여 문제 해결하는 조건에 있어 더 진보된 학습을 이끄는 유형이 무엇인지 알아보려고 하였다. 연구결과, 혼자서 문제 해결하는 조건에서보다 다른 사람과 협동하여 문제 해결하는 조건에서 아동들은 과제해결을 위한 시간을 더 많이 보냈고,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 포기하는

행동도 감소되었다. 또한 다른 사람의 레고 구성모델을 참관할 때는 협상의 전략을 사용하였다. 연구자들은 상호작용을 하는 동안 숙련된 수준의 아동이 초보적 수준 아동의 행동을 모니터하고 과제와 관련된 코멘트나 시범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밝혔다.

Sluss(1995)는 4세를 대상으로 하여 사회인지적 놀이수준이 높은 아동들만의 또래집단, 낮은 아동들만의 또래집단, 높고 낮은 수준의 아동들이 혼합된 또래집단을 구성하여 블록놀이에서 나타나는 사회적 놀이행동과 구성놀이의 복잡성 그리고 의사소통전략을 비교하였다. 연구결과 사회인지적 놀이수준이 낮았던 여아들은 더 높은 수준의 또래와 놀이한 경우에 원래의 자기수준보다 한 수준 높은 사회적 놀이행동을 보이고 있었다. 또한 적목 놀이의 복잡수준과 의사소통전략수준등도 수준별 또래집단간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와 같은 연구들은 놀이 속에 이루어지는 아동들 간의 의사소통과정 속에서 협상수준의 측정이 가능함을 보여주고 있다. 즉 가상놀이와 구성놀이 등을 포함한 다양한 놀이를 통해 아동들이 주고받는 대화 장면에서 협상이 포착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한편, 협상에 관한 아동변인으로 연령에 관한 연구들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연령과 관련된 선행연구들에 의하면 대체적으로 연령이 낮은 아동들에 비해 연령이 높은 아동들의 협상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신현기, 1995; 오선영, 1997; Berndt, 1981; Borman, 1981, 1982; Doyle & Connolly, 1987 & 1989; Leonard 1988; Selman 등, 1983, 1984, 1986; Yeats 등, 1991). 이렇게 연령이 높은 아동들이 낮은 아동들에 비해 협상수준이 높게 나타나는 이유는 연령의 증가에 따른 인지적인 성숙 때문이라고 한다. 이

들은 주로 협상능력을 협상전략수준을 근거로 분석하였는데 전반적으로 10세를 기준으로 협상전략수준이 변화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오선영, 1997; Leonard, 1988; Yeats 등, 1991).

Selman과 그의 동료들(1984)은 9세 아동들을 대상으로 35주간 2년에 걸친 동료치료(pair therapy)의 진행과정을 분석하면서 협상수준의 발달을 보고하였다. 이 연구에 의하면 9세 아동들이 2년간 보여준 협상수준은 1수준에서 2수준으로 그리고 0수준으로 퇴행했다가 3수준으로 발달하였다. 그들의 또 다른 연구에서도 3, 4학년 아동들과 7학년 아동 간 비교 연구, 그리고 3, 4학년과 5학년의 협상수준에 대한 비교연구에서도 협상수준의 발달상태가 1 또는 2수준에서 0수준으로 퇴행했다가 3수준으로 발달한다고 보고 된 바 있다(Yeats 등, 1991). 협상수준 특히 협상수준에 따른 전략은 연령이 증가할수록 수준이 높아지는 것은 사실이나 순서대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잠깐 수준이 낮아졌다가 다시 높아진다는 것이다(Selman 등, 1984; Yeats 등, 1991).

위와 같은 연구결과에 의하면 아동들의 연령과 협상수준의 관계가 단순히 연령이 증가할수록 협상수준이 비례적으로 증가되는 것인지 또는 일시적인 퇴행이나 부진을 수반한 수준의 변화나 기복이 나타나는지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게 된다. 아동들의 연령에 따른 협상비교는 단순한 고·저학년 등 2분법으로 검증할 것이 아니라 좀더 세분하여 최소한 3개 학년 이상의 아동들의 협상수준 차이를 검증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다른 한편, 아동들의 성별과 협상과의 관계에 대한 선행연구들의 결과도 연구에 따라 서로 엇갈리고 있다. 11세에서 19세 아동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Selman 등, 1986; Yeats 등, 1991)에 의

하면, 아동들의 협상전략을 가상적인 딜레마 상황에서 면접한 결과 남아보다 여아의 협상수준이 높다고 보고하고 있다. 반면에 초등학교 3, 6학년 아동들을 대상으로 아동들의 놀이에 나타난 협상을 관찰한 연구에서는 남아들이 여아에 비해 협상을 더 잘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으며, 특히 경쟁적인 놀이상황에서 협상을 더 많이 한다고 보고하고 있다(Borman, 1981, 1982). 또한, 협상과 성별은 관련이 없다고 보고하는 연구도 있다(Selman 등, 1983).

따라서 본 연구자는 이상과 같은 선행연구들의 상이한 결과에 입각하여 연령과 성별의 요인이 아동의 협상수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재고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아동 생활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놀이를 통해 연령과 성별에 따른 협상능력을 검증하고자 하였다. 즉, 블록놀이를 확장시킨 전자놀이감을 가지고 두 아동이 놀이 과제를 진행하는 중에 주고받는 의사소통과정에 나타나는 연령과 성별에 따른 협상수준의 차이를 밝히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인 것이다. 협상 당사자인 아동의 관련 특성으로서 연령과 성별을 선정하고 협상수준과의 관계를 규명함으로써 선행연구들의 상이한 결과에 대한 검증을 시도하려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의 결과는 차후 아동의 협상수준을 이해하고 향상시킬 수 있는 근거 마련에 기초 자료가 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에 따라 다음과 같은 문제를 제기하고 검토하고자 한다.

- <연구문제 1> 아동의 협상수준은 연령에 따라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가?
- <연구문제 2> 아동의 협상수준은 성별에 따라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가?

용어의 정의

협상(negotiation) : 협상은 갈등이 있는 둘 이상의 당사자들이 공동 이익이나 갈등을 가지고 상호이익을 추구하며 합의에 도달하는 상호작용 과정을 말한다. 본 연구에서 아동의 협상이란 주어진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상대방과 본인의 목적을 합의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협상수준(negotiation level) : 협상수준은 Stone, Robinson 과 Taylor들이 제시한 요강에 근거하여 총동적인 0수준, 일방적인 1수준, 상호적인 2수준, 협동적인 3수준으로 분류되며, 본 연구에서는 아동들이 주어진 과제를 수행하면서 보여주는 대화와 행동을 통해 본인의 목적을 합의하는 과정을 4수준으로 분류하였다.

Ⅲ. 연구 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대상은 경기도 안산에 위치한 C 초등학교와 S 초등학교의 7세·9세·12세에 해당하는 143명의 1, 3, 6학년 아동들이다. 초등학교 1, 3, 6학년 아동들을 연구대상으로 선택한 이유는 협상능력의 발달이 아동의 조망수용능력의 발달과 병행한다는 선행연구(Selman 등, 1983, 1984, 1986 & 1991)에 따른 것이다. 우선 협상수준의 전체적인 형태를 발견하기 위하여 전조작기인 7세 아동을 포함하여 구체적 조작기에 해당하는 9세 아동들을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또한 협상은 유아기부터 나타나기 시작하지만 10세 이후에 협상수준이 급격하게 변한다는 이론을 확인하기 위하여(오선영, 1997) 12세 아동들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본 연구의 실험은 아동이 차기 학년으로 진

〈표 1〉 연구대상 아동

	남	여	계	평균연령
1학년	14	12	26	7세 5개월
3학년	28	33	61	9세 4개월
6학년	27	29	56	12세 5개월
계	69	74	143	

급하기 직전인 각 학년말 2월에 실시되었다. 그 결과 평균연령은 1학년이 7년 5개월, 3학년은 9년 4개월, 6학년은 12년 5개월이었다.

2. 측정도구

1) 협상수준의 측정도구1)

본 연구는 아동이 협상과제를 완성해가는 수준을 보기 위하여 Stone, Robinson 그리고 Taylor (1980)가 제작한 <과제완성 협상요강>을 참고로 하였다. Stone등의 협상요강에서 제시한 협상수준은 <표 2>와 같다.

2) 아동들에게 주어진 과제

본 연구에서는 협상 수준을 살펴보기 위해 플

1) 국내에서 아동의 협상에 대한 연구를 할 경우 Selman(1979, 1980)의 연구와 Göncü의 연구를 협상에 관한 분석기준으로 사용한 경우가 많다. Göncü의 연구는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학령기의 아동들을 대상으로 하는 본 연구에서는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었다.

Selman(1983, 1984, 1986)의 연구에서 사용한 협상 전략은 Stone, Robinson, & Taylor(1980)의 협상수준을 보완하여 자기지향, 타인지향의 대인문제해결 전략으로 협상수준을 설명한다. 특히 대인문제와 관련된 아동의 협상에 관한 국내 연구들은 Selman의 연구를 근거로 협상을 분류하고 있어서(강영택, 1997; 박찬옥, 1985; 오선영, 1997) 마치 협상수준이 Selman에 의해 분류된 것처럼 오해받기도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협상의 수준을 보기 위하여 Stone, Robinson, & Taylor(1980)의 협상요강에서 제시한 협상수준을 사용하였다.

〈표 2〉 협상의 수준

	수준의 정의	아동들이 놀이 속에서 보여준 행동의 예
0 수준	<p>충동적인(impulsive) 수준 이 단계에서는 원하는 것을 갖거나, 해로움을 피하기 위해 원초적이며 충동적이고 물리적 행동이 나타난다. 이 수준의 전략은 기본적으로 자기중심적 성향에 기초하고 있으며, 조망수용기술이 분리되지 않았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무분별한 힘을 가하거나(예; 때리거나, 갈취하기) 또는 스스로를 방어하기 위해 무분별하게 순응적이거나 철회하는 형태가 이에 속한다.</p>	<p>함께 놀이를 하고 있다는 인식이 없어 보이는 경우에 해당한다. 다음의 대화내용에서 A는 주어진 과제 또는 상대방에 대한 인식 없이 놀이에 대한 탐색만 하고 있다. 이런 행동을 보이는 경우 0 수준으로 간주된다.</p> <p><관찰내용> A: (기차 돌림) B: (리모콘을 사용하여 트럭을 좌우로 옮기다가 손으로 트럭을 잡아 방향을 돌린다) A: 너 뭐할 거야? B: (크레인을 좌우로 움직인다. 이후 트럭을 움직인다.) 잠깐만 (크레인을 기차 위로 옮긴다) A: (트럭 옮겨서 2층으로 옮긴다) B: (트럭을 옮긴다) A: (기차를 올린다)</p>
1 수준	<p>일방적인(unilateral) 수준 수준 1 단계에서의 전략은 타인을 조절하거나 유희시키기 위해 단독적인 시도를 보인다. 이 수준에 속하는 사람들은 주관적인 조망수용기술에 의존하고 있다. 타인과 조망이 다르다고 생각은 하지만, 자발적으로 동시에 고려하지는 못하는 단계이다. 따라서 힘을 옹호하거나, 타인에 대한 배려는 일방적인 방법에 의해 계획되어 있고, 명령하기처럼 스스로에 대해 만족해하거나, 자신의 의도가 없는 상태로 타인에게 요구하고, 조절하며, 권력에 복종한다.</p>	<p>본인의 요구에 맞추어 상대방이 반응해주기를 바라면서 단독적으로 요구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다음의 관찰내용에서 보여주는 C 와 D 아동은 1 수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p> <p><관찰내용> C: 빨리 사다리 올려. D: 내가 올려. (엘리베이터를 내린다) C: 야, 내려와. D: 올린다. C: 됐어. D: (웃는다) C: 뭐야 더 올려. 더. D: 올린다, 앞싸 내가 할 거야, 너 차가 몇 번이라고? C: 2번. 아 안돼. 끼었다. 내가 움직일 거야</p>
2 수준	<p>상호적인(reciprocal) 수준 이 단계에서는 참여자 모두 거래, 교환 등을 통한 상호적인 열정으로 상대방 모두를 만족시키는 시도를 포함한다. 수준 2에 속하는 전략들은 자기-반성적인 조망수용력에 의존하고 있다. 주관적인 관점에서 상대방에 대한 차별을 두면서도 동시에 타인을 고려할 수도 있다. 이런 전략들에서는 이유대기나 번갈아 가면서 하기 등의 타인의 마음을 바꾸기 위해 심리적인 영향을 가하거나, 타인의 요구를 이차적으로 만들고 자신의 이득을 얻기 위해 심리학적 순응을 한다.</p>	<p>타인의 요구에 응해주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의사소통이 진행되고 있으며, 다음의 E 와 F 아동 모두 상대방을 고려하면서 주어진 목적을 달성해 가고 있다.</p> <p><관찰내용> E: 1로 가 봐. 야. 여기다. F: 야 어 이거 밧 짓이지. E: 난 5번 할래. F: 난 5번. 선생님, 5번이 없는데요. 6번 해야지. E: 6번이 뭐대. F: 3번이야. 6번 여기 있네. E: 나 이거 할 거다. F: 나 이거 어떻게 하는지 알아. E: 난 1번. F: 야 이것 좀 해 봐.</p>
3 수준	<p>협동적인(collaborative, mutual) 수준 이 단계는 가장 높은 단계로 스스로의 요구와 타인의 바람을 상호간에 모두 달성하려는 목적으로 협동적인 시도를 한다. 이 전략에서는 제 3자의 조망을 수용하는 것으로, 자기와 타인의 관점의 상호 관계 속에서 또는 제3자의 관점에서 협력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이 수준에서 전략은 상호 만족스러운 해결방법을 구성하고 타협하게 하는 대화과정으로 유용하게 진행된다. 수준 3에서는 연속적인 관계를 고려하거나 그것들이 갖고 있는 추상적인 문제들을 이해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다른 협상 단계와는 달리 힌트나 풍자들을 제공한다.</p>	<p>서로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협동적인 모습을 보이는 경우로 때때로 가상놀이형태를 보이기도 한다. 다음의 관찰내용에서는 서로 격려해 주면서 가상놀이형태로 목적을 달성하고 있다.</p> <p><관찰내용의 예> G: 아이고, 잘했어요 H: 네. G: 여기서 기다려. H: 어, 자동차 나가신다. 기다려. 어, 싫어. 여보. 여보 나 오늘 일 다 했어. 실래. 2번이야. G: 안녕히 가세요.</p>

라스틱 블록의 한 유형인 미국 Rokenbok²⁾ 회사의 놀이감을 사용하여 놀이환경을 제공하였다. 이는 아동의 의사소통 및 협상 수준을 보기 위해 레고 등의 플라스틱 블록을 사용한 선례들을 따라(오선영, 1997; Azmitia, 1988; Sluss, 1995) 선정된 놀이감 및 환경구성이었다. 또한 연구대상자들의 기존 놀이감에 대한 사전 경험정도가 놀이 속에 나타나는 아동들의 협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연구결과(강영택, 1997; 이숙영, 1994; How 등, 1998; Rivas, 1999)를 고려하여 사전 경험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본 연구대상들이 아무도 사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놀이감으로 Rokenbok사의 2001년도 개발된 놀이감을 사용한 것이다.

Rokenbok사의 놀이감은 플라스틱 블록의 특징을 가질 뿐 아니라 아동들에게 호기심과 관심을 갖게 하는 컴퓨터 테크놀로지를 연합한 전자놀이감으로서, 놀이 과제를 수행하는 중에 놀이감 조작 및 역할 분담이라는 난해한 문제 해결을 요한다. 따라서 협상의 전제조건인 갈등(이종태, 2001)을 놀이자간에 유발시킬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본 연구자들은 아동들의 놀이 속에 나타나는 협상을 살펴보기 위하여 놀이과제를 제시하였다. 부과된 과제는 연구자가 구성한 놀이 환경에서 공과 미니드럼통을 정해진 수하물통에 옮기는 것이다.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서 아동들은 기차, 트럭, 엘리베이터, 크레인과 같은 놀이감을 움직여야 한다. 놀이감을 움직이기 위해 아동들은 원하는 놀이감에 전자칩을 삽입한 후 리모콘으로 조절한다. 놀이과정 중에 역할분담을 하거나 놀이감을 선택하기 위하여 그리고 본인이 원하는 전자칩을 삽입하기 위하여, 2명의 아

동들은 서로 협상을 하게 된다.

〈그림 1〉 아동에게 제공된 놀이 환경 세트

3. 연구절차

1차 예비조사는 2002년 2월 1일에서 9일까지였다. 1차 예비조사의 목적은 아동들이 Rokenbok 놀이감을 가지고 놀이하는 것이 타당한가를 확인하기 위함이었다. 2차 예비조사는 2002년 12월 10일에서 18일까지 초등학교에 재원중인 36명의 아동들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2인 구성과 3인 구성으로 놀이를 하게 한 결과, 본 조사에서는 2인이 1개조를 이루어서 놀이를 하도록 결정 하였다. 3인 놀이의 경우, 의사소통의 구조가 매우 복잡적이어서 관계규명이 용의하지 않기 때문이다. 놀이자체의 복잡함 정도는 2인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수준이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2인이 놀이과제를 수행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 것으로 여겨졌다.

본 조사는 2003년 2월 10일부터 18일 사이에 이루어졌다. 2인이 함께 놀이를 하도록 지시한 후 아동들의 과제수행작업을 8mm비디오로 촬영하였다. 연구자들은 교실에서 놀이감을 가지고 노는 것을 촬영할 것이라고 아동들에게 미리 밝히고 협상에 관해서는 아무런 언급 없이 주어진 놀이과제를 수행할 것을 요청하였다.

2) Rokenbok 홈페이지 주소; www.rokenbok.com

4. 자료 분석

1) 자료의 전사 및 부호화

2인 1조씩 놀이를 하는 과정 속에서 나타나는 아동의 협상을 분석하고자 본 연구자는 아동의 놀이를 8mm 비디오로 녹화하였다. 녹화된 비디오 자료를 대상으로 본 연구자가 아동의 행동 내용과 대화 내용을 전사하였다. 또한 아동들의 상호작용에서 이루어지는 의사소통 중 협상수준을 평가하기 위하여 아동학과 박사 과정에 재원중인 3인이 Stone과 그의 동료들(1980)의 요강에 제시되어 있는 대로 아동의 협상 수준을 분류하였으며 관찰시간 일치도는 .89이었다. 이렇게 분류된 협상수준에 대해 각 아동별 평균이 계산되었다.

연구 자료로서 의사소통의 전사내용과 비디오 자료를 병행하여 사용한 이유는 대화 중에 사용된 어휘나 어법만으로는 협상 수준 구분에 있어 2수준과 3수준 구분이 모호하였기 때문이다. 전사 즉 기록된 대화내용으로만 분류할 경우, 힌트나 풍자, 농담 등 재해석이 필요한 3수준 분류에 오류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

2) 사용된 통계 방법

아동의 연령과 성별에 따른 협상수준의 차이 검증은 위해서 SPSS 10.0에 의한 이원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Ⅲ. 연구결과

우선 아동의 연령에 따른 협상수준을 분석하기 위해 평균과 표준편차를 살펴보았다. <표 3>에 제시된 바와 같이 7세 협상수준의 평균은 1.63이며, 9세 협상수준의 평균은 7세보다 낮은 1.54, 12세 협상수준의 평균은 2.38로 나타났다. 143명 전체의 협상수준의 평균은 1.89이었다.

아동의 성별에 따른 전체 협상수준의 평균은 남아가 1.95, 여아는 그보다 낮은 1.82로 나타났다. 아동의 연령과 성별에 따른 협상수준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7세의 남아들의 협상수준의 평균은 1.64이며, 여아들의 평균협상수준은 1.63이었다. 9세들의 평균협상수준은 남아 1.56, 여아 1.51로 7세들의 협상수준보다 오히려 낮게 나타났다. 한편 12세 아동들의 평균 협상수준은 7세와 9세에 비해 높은 수준인 남아 2.51, 여아 2.25로 나타났다. 즉 7세 9세들은 평균적으로 1수준과 2수준의 중간수준 즉 일방적인 협상과 상호적인 협상의 중간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12세 아동들은 상호적인 수준 이상의 협상을 보이고 있었다.

연령과 성별에 따른 협상수준의 차이를 검증하기 위해 이원 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연령에 따른 협상수준의 차이는 통계적인 의의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4>참조, $p < .001$). 사후검증 결과, 연령에 따른 협상수준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은 12세 아동들의 협상수

<표 3> 연령 및 성별에 따른 협상수준의 평균과 표준편차

성별	7세			9세			12세			전 체		
	평균	표준편차	n	평균	표준편차	n	평균	표준편차	n	평균	표준편차	n
남	1.64	.63	14	1.56	.68	28	2.52	.64	27	1.95	.79	69
여	1.63	.43	12	1.51	.66	33	2.26	.66	29	1.82	.72	74
Total	1.63	.54	26	1.54	.66	61	2.38	.66	56	1.89	.75	143

준이 7,9세 아동들의 협상수준에 비하여 유의하게 높았던 데에 기인한다($p < .001$).

성별에 따른 협상수준의 차이는 유의하다고 볼 수 없으며, 연령과 성별간의 상호작용 역시 유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의 연령과 성별에 따른 협상수준의 변화

〈표 4〉 연령과 성별에 따른 협상수준의 분산분석

	자승화	자유도	평균자승화	F	Scheffe
연령	23.139	2	11.570	28.013***	7, 9 < 12
성별	.358	1	.358	.868	n. s.
연령×성별	.430	2	.215	.521	n. s.
오차	56.582	137	.413		
합계	588.999	143			

*** $p < .001$

양상을 살펴보기 위하여 <그림 2>를 제시하였다. 그림에 의하면, 7세에 비해 9세에서 협상수준이 하향하고 있으며, 12세에는 협상수준이 급격히 상향하고 있다.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의 목적은 아동의 연령과 성별에 따른 협상수준의 변화를 살펴보는 것이었다. 이를 위하여 2인 아동을 짝을 짓게 한 후 플라스틱블록과 전자놀이감을 결합시킨 Rokenbok사의 놀이감으로 조성된 놀이환경에서 놀이과제를 수행하게 하였으며, 놀이하는 동안 나타나는 의사소통

〈그림 2〉 아동의 연령과 성별에 따른 협상수준의 변화

〈그림 3〉 아동의 연령에 따른 협상수준의 변화

〈그림 4〉 아동의 성별과 협상수준

을 중심으로 아동들의 협상수준을 Stone과 그의 동료들(1980)의 요강에 의하여 분류하였다.

본 연구결과 아동들이 보여준 협상수준의 평균을 자세히 살펴보면, 7세가 9세보다 높았고, 12세가 7세와 9세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남아가 여아에 비해 약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기초로 하여 본 연구자는 다음과 같은 논의를 하고자 한다.

첫째, 아동의 연령과 협상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연구결과 12세 아동들의 협상수준이 7세와 9세 아동들의 협상수준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아동들의 협상수준은 연령이 증가할수록 증진된다는 여러 선행 연구들(신현기, 1995; 오선영, 1997; Berndt, 1981; Borman, 1981, 1982; Doyle & Connolly, 1987 & 1989; Leonard, 1988; Selman 등, 1983, 1984, 1986; Yeats 등, 1991)의 결과와 일치하고 있다.

한편, 7세에서 12세까지 아동의 전체적인 연령을 고려하면 협상수준이 향상되었으나 평균을 자세히 살펴보면, 7세 1.65, 9세 1.53, 12세 2.38로 9세의 협상수준이 7세의 협상수준보다 평균이 낮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선행연구들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Selman과 그의 동료들은 9세 아동들을 대상으로 35주간 2년에 걸친 동료치료(pair therapy)의 진행과정을 분석하면서 협상수준의 발달을 보고하였다. 이 연구에서 9세 아동들이 2년간 보여준 협상수준은 1수준에서 2수준 그리고 0수준으로 퇴행했다가 단계를 건너서 3수준으로 발달하기도 하였다. 또다른 연구 즉 3, 4학년 아동들과 7학년 아동간 비교연구, 그리고 3, 4학년과 5학년의 협상수준에 대한 비교연구에서도 협상수준의 발달상태가 1 또는 2수준에서 0수준으로 퇴행했다가 3수준으로 발달한다고 보고된 바 있다(Yeats 등, 1991). 협상수준, 특히 협상수준에 대한 전략은

전체적으로는 연령이 증가할수록 높아지는 것이 사실이나, 중간에 잠깐 수준이 낮아졌다가 다시 높아진다는 것이다(Selman, 등, 1984; Yeats 등, 1991). 이는 교육현장에서 아동의 협상수준이 자신의 연령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거나 일시적인 퇴행을 보여도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이해되어야 하며 연령적 성숙과 함께 아동이 다양한 놀이상대를 만나고 협상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또한 기존의 연구에 의하면 연령에 따른 변화는 전반적으로 10세를 기준으로 크게 변화하는 것으로 나타난다(오선영, 1997; Leonard, 1988; Yeats 등, 1991). 본 연구결과도 이와 유사하게 7세와 9세의 협상수준의 차이는 크지 않은 반면 9세와 12세 사이의 차이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연구결과에 근거하여 연령과 협상수준의 관계를 정리하면, 전체적인 맥락에서는 연령이 증가하면서 협상수준이 향상되는 것처럼 보이나, 10세 이전에 잠시 하향하는 경향이 나타난다는 것이다. 즉 10세를 기준으로 협상수준의 기복이 생길 수 있음을 감안하여, 연령 특성에 따른 협상경험의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으며, 상대적으로 높고 낮게 나타나는 일시적인 협상전략의 수준 차에 대한 지나친 의미 부여에 대해서도 경계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둘째, 아동의 성별과 협상수준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통계적인 의의는 발견하기 어려웠지만, 남아가 1.95, 여아는 1.82로 남아가 여아보다 더 협상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의 성별과 협상수준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선행연구 상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11세에서 19세 아동들을 대상으로 한 Selman과 그의 동료들(1986)과 Yeats과 그의 동료들(1991)은 여아가 남아보다 협상수준이 더 높다고 보고하였다. 반면 초등학교 3, 6학년 아동들을 대상으로

한 Borman(1981, 1982)은 남아가 여아보다 협상수준이 더 높다고 하였으며, Selman과 그의 동료들(1983)의 또 다른 연구에서 그들은 협상과 성별은 서로 관련이 없다고 보고하였다. 협상과 성별의 관계에 대한 엇갈리는 보고는 협상의 평가방법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여아가 남아보다 협상수준이 높다는 결과를 얻은 연구와 여아와 남아의 협상수준이 상관없다는 결과를 제시한 연구들은 가상적 딜레마 상황내의 협상전략을 면접방법(Selman 등, 1986) 또는 담임교사에 의한 평정척도로 연구한 것이다(Yeats 등, 1991). 그런가 하면 남아가 여아보다 협상을 더 잘한다고 보고한 연구는 옥외 놀이 활동 속에서 나타나는 행동기술적인 방법으로 분석하고 있다(Borman, 1981, 1982). 이들의 분석을 종합하면 결국 남아인 경우에는 협상하는 행동이 우세한 반면 여아들인 경우에는 전략에 대한 사고가 우세한 것으로 해석된다.

본 결과에서 비록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으나 평균적으로 남아가 여아보다 협상수준이 높았던 것은 선행연구들의 보고처럼 협상의 평가방법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연구자는 아동의 협상수준을 행동관찰의 방법으로 평가하였다. 따라서 전략적인 사고보다는 협상하는 행동이 우세한 남아가 보다 높은 수준을 나타낸다는 선행연구와 동일한 경향의 결과가 도출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행동관찰의 방법으로 협상을 측정함으로써, 남아가 여아보다 높은 협상수준을 보인 것으로 평가되었을 가능성에 착안하여, 본 연구자들은 이상과 같은 남아의 행동과 협상에 영향을 미쳤을 요인 중 하나인 놀이감의 특성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전자놀이감을 이용한 놀이상황에서 나타나는 협상수준을 분석하였다. 여기서

놀이상황이란 아동들이 자동차와 기차, 크레인, 엘리베이터등의 놀이감을 리모콘으로 조작하여 움직이게 하는 상황을 말한다. 즉, 제공된 놀이상황이 전기를 이용한 블록놀이로서 남아가 여아에 비해 좀더 친숙할 수 있는 환경일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Johnson, Christie & Yawkey, 1987). 또한, 여아에 비해 남아들은 놀이상황 속에서 협상을 더 잘하는 것으로 보고 된 바 있으며, 특히 경쟁적인 놀이상황에서 협상을 더 많이 한다는 보고도 있다(Borman, 1981, 1982). 본 연구에서 아동들에게 주어진 놀이과제는 주어진 공과 드럼통을 수하물 상자에 옮기는 것이었다. 이러한 과제수행이라는 목적이 오히려 경쟁적인 분위기를 조성함으로써 남아로 하여금 보다 적극적으로 협상하도록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이상으로 연구의 논의를 마치며 본 연구가 지니는 몇 가지 제한점을 기초로 추후연구를 위한 제언을 함으로써 결론을 맺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의 대상은 경기도 안산지역의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1, 3, 6학년 학생들이었다. 추후에는 다양한 지역에 속해 있는 여러 학년의 아동을 대상으로 연구를 실시하여 본 연구의 일반화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기를 기대한다. 또한 연령과 성별 외에 다른 변인들과 아동의 협상수준과의 관계를 밝히는 추후 연구를 제언하고자 한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아동의 협상수준을 측정하기 위하여 놀이 속에서 나타나는 상호작용을 통해 협상수준을 측정하였다. 추후에는 이러한 상호작용에서 나타나는 수준과 아동들의 인식에서 나타나는 수준에 차이가 있는지에 대한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특히 선행연구들에 의하면 가상적 딜레마 상황속의 협상을 검증한 경우 여아가 남아보다 협상수준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따라서 협상행동과 협

상전락수준 비교 및 가상적 딜레마 상황을 통한 협상수준과약을 할 수 있는 다각적인 협상수준의 측정방법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세째, 본 연구에서는 아동들의 선행경험에 대한 효과를 배제하기 위하여 아동에게 생소한 Rokenbok 놀이감을 제공하여 놀이 속에 나타나는 협상수준을 평가하였다. 그러나 연구에 사용된 Rokenbok 놀이감은 컴퓨터 테크놀로지와 빌딩 짓기를 확장시킨 전자식 블록놀이감으로서, 전자놀이감에 대한 남녀 아동의 선호도가 아동 상호간의 협상결과에 영향을 끼쳤을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추후에는 놀이감의 특성에 따른 아동의 협상수준을 분석하는 연구가 요청된다.

참 고 문 헌

- 강영택(1997). 사회적 사상지식혼련이 정인지체아동의 사회 및 언어적 행동에 미치는 효과. 단국대학교 박사학위 청구논문.
- 박지숙(2002). 청소년기 이성관계에서의 갈등협상전략과 자아중심성과의 관계. 경산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박찬옥(1986). 아동의 대인문제해결사고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박사학위 청구논문.
- 신현기(1995). 정인지체아동의 대인문제해결 특성. 단국대학교 박사학위 청구논문.
- 오선영(1997). 인지발달단계에 따른 아동의 사회적 대쌍 협력행동. 중앙대학교 박사학위 청구논문.
- 오선영(2000). 대쌍협력상황에서 나타난 아동의 사회적 역할수용행동에 관한 연구. *유아교육연구*, 20(2), 121-138.
- 이달곤(2000). 협상론 : 협상의 과정, 구조, 그리고 전략. 서울 : 법문사.
- 이숙영(1994). 공동작업의 경험이 유아의 사회성 발달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이종태(2001). 성공하는 사람들의 협상비결. 서울 : 한국생산성본부.
- Atizma, M.(1988). Peer interaction and problem solving : when are two heads better than one? *Child Development*, 59, 87-96.
- Berndt, T. J.(1981). Age changes and changes over time in prosocial intentions and behavior between friends. *Developmental Psychology*, 17(4), 408-416.
- Borman, K. M.(1981). *Children's interpersonal relationships : Playground games and social cognitive skills*. Final report. submitted to the national institute of education for the Project NIE G 79-0123.(Eric Document Reproduction Service No. 207-697).
- Borman, K., Barrett, D., Sheoran, P., & Sheorn, P. (1982). *Negotiating playground games*. Paper presented at the American Sociological Association Annual Meeting, San Francisco, CA.(Eric Document Reproduction Service No. 223-343).
- Cohen, H.(1980). *You can negotiate anything*. New York : Bantam Books.
- Doyle, A. B., Doehring, P., Tessier, O., de Lorimier, S., & Shapiro, S.(1992). Transitions in children's play : A sequential analysis of states preceding and following social pretense. *Developmental Psychology*, 28(1), 137-144.
- Doyle, A., & Connolly, J.(1987). *Negotiation and enactment in social pretend play : Relations to social acceptance and social cognition*.(Eric Document Reproduction Service No. 286-630).
- Doyle, A., & Connolly, J.(1989). Negotiation and enactment in social pretend play : Relations to social acceptance and social cognition. *Early Childhood Research Quarterly*, 4, 289-302.
- Göncü, A.(1985). *Toward an interactional model of developmental changes in social pretend play*. (Eric Document Reproduction Service No. 264-032).
- Göncü, A.(1993). Development of intersubjectivity in

- the dyadic play of preschoolers. *Early Childhood Research Quarterly*, 8(1), 99-116.
- Göncü, A.(1999). Children's play as cultural activity. In A. Gonen(ed.), *Children's engagement in the world. : Sociocultural perspectives*(pp. 148-170). New York : Cambridge University Press.
- Harvard business Essentials(2004). 협상태이블의 핵심 전략. 현대경제연구원(역). 서울 : 청림출판사.
- Harvard business Reviews(1960). *Harvard business review on negotiation and conflict resolution*. Boston, MA. : Harvard Business School Press.
- Howe, N., Petrakos, H., & Rinaldi, C. M.(1998). "All the sheeps are dead. He murdered them" : Sibling pretense, negotiation, internal state language, and relationship quality. *Child Development*, 69(1), 182-191.
- Howe, N., Rinaldi, C. M., Jennings, M., & Petrakos, H.(2002). "No! The lambs can stay out because they got cozies" : Constructive and destructive sibling conflict, pretend play, and social understanding. *Child Development*, 73(5), 1460-1473.
- Johnson, J. E., Christie, J. F., & Yawkey, T. D.(1987). *Play and early childhood development*. Illinois : Scott, Foresman and company.
- Leonard, R.(1988). *Exploring the roles of requests, refusals and reasons in preschoolers' negotiations*. Paper presented at the 5th Australian Development Conference. (Eric Document Reproduction Service No. 301-312).
- Matthews, W. S.(1977). Modes of transformation in the initiation of fantasy play. *Developmental Psychology*, 13(3), 212-216.
- Rivas, M. G.(1999). *Student -student negotiation : Characteristics of constructing understanding*. Paper presented at the annual meeting of the national association for research in science teaching, Boston MA. (Eric Document Reproduction Service No. 446-913).
- Schultz, L., & Selman, R. L.(1997). Disconnections between psychosocial competence and interpersonal performance in a school bully. In S. L. Selman, , C. L. Watts, & L. H. Schultz (eds.), *Fostering friendship; Pair therapy fir treatment and prevention*(pp.273-304). New York : Aldine de gruyter.
- Selman, R. L., & Demorest, A. P.(1984). Observing troubled children's interpersonal negotiation strategies : Implications of and for a developmental model. *Child Development*, 55, 288-304.
- Selman, R. L., Beardslee, W., Schultz, L. H., Krupa, M., & Podorefsky, D.(1986). Assessing adolescent interpersonal negotiation strategies : Toward the integration of structural and functional models. *Developmental Psychology*, 22(4), 450-459.
- Selman, R. L., Schorin, M. Z., Stone, C. R., & Phelps, E.(1983). A naturalistic study of children's social understanding. *Developmental Psychology*, 19(1), 82-102.
- Sluss, D. J.(1995). Play as the zone of proximal development : Collaborative constructive block play. Doctorial dissertation, Blacksburg Virginia University.
- Stone, C. R., Robinson, S., & Taylor, S.(1980). Negotiation of task completion coding manual I implementation. Unpublished Manual by Harvard-Judge baker social reasoning project, Boston, Ma.
- Sutton-Smith, B.(1983). Piaget, play and cognition revisited. In W. F. Overton(ed.)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al and cognitive development*(pp. 229-249). Hillsdale, NJ : Lawrence Erlbaum Associates Publishers.
- Yeates, K. O., Schultz, L. H., Selman, R. L.(1991). The development of interpersonal negotiation strategies in thought and action : A socialcognitive link to behavioral adjustment and social statues. *Merrill-Palmer Quarterly*, 37(3), 369-406.

2004년 2월 29일 투고 : 2004년 4월 2일 채택